

초록번호 13-1

제 목	국 문	임산부의 분만방법 결정과정과 만족도		
	영 문	Decision-making process and satisfaction of pregnant women for delivery method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전혜리, 박정한, 박순우, 허창규 ¹ , 황순구 ² 대구효성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산부인과학교실 ¹ , 대구제일병원 ²		
	영 문	Hae Ri Jun, Jung Han Park, Soon Woo Park, Chang Gyu Huh ¹ , Soon Gu Hwang ²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Department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¹ , School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Taegu-Hyosung, Taegu Cheil Hospital ²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전혜리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1970년 이전에는 10%미만이었으나, 1986년 9.6%, 1990년 18.1%, 1993년 28.1%(이상 의료보험공단자료), 1997년 35.7%(전국 표본조사)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제왕절개 분만율을 적정수준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노력과 의료보험정책의 보완뿐만 아니라 의료이용자측의 노력도 필요하다. 의료이용자측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분만방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이용자의 가치나 태도, 선호도 및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임신 말기 임부의 분만방법에 대한 견해 및 선호도, 분만방법의 결정 주체, 제왕절개분만을 한 산모의 제왕절개분만 이유에 대한 이해 수준, 분만후 분만방법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분만방법 결정과정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p> <p>2. 연구 방법</p> <p>본 연구는 대구시 소재 1개 종합병원과 1개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1998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동안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내원한 재태기간 36주 이상의 임부 가운데 본 조사에 응한 전원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만직후와 분만 1개월후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p> <p>3차례의 설문조사에 모두 응한 최종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분만방법, 임신기간중 임부와 태아의 병력,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산모와 출생아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제왕절개 이유를 확인하였다. 분만 경험 유무에 따라 대상자를 초산부와 경산부로 분류하여 산전 분만방법에 대한 견해, 산전에 선호한 분만방법, 실제 분만방법, 분만방법 결정과정, 산후 분만방법에 대한 만족도 및 다음 분만시 선호하는 분만방법을 비교하였다.</p>				

3. 연구결과

조사대상자는 693명으로 종합병원 533명(76.9%), 전문병원(23.1%)이었다. 분만전 설문조사에서 아기의 건강을 위해 제왕절개분만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임부의 비율은 제왕절개분만을 한 경산부(9.2%)가 초산부(2.3%)와 자연분만을 한 경산부(2.6%)에 비해 높았고 엄마의 건강을 위해 제왕절개분만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임부의 비율도 제왕절개분만을 한 경산부(7.9%)가 초산부(2.3%)와 자연분만을 한 경산부(2.6%)보다 높았다. 분만전 선호한 분만방법은 초산부의 90.6%, 자연분만을 한 경산부 92.1%가 자연분만을 원했고, 제왕절개분만을 한 경산부는 85.6%가 제왕절개분만을 원했다.

실제 분만방법은 자연분만이 67.7%, 제왕절개분만이 32.3%이었고, 이전 분만방법별 제왕절개 분만율은 초산부에서 36.9%, 이전에 자연분만한 경산부는 7.8%, 제왕절개분만한 경산부는 100%가 제왕절개분만을 하였다.

분만전 자연분만을 선호하였던 임부들이 제왕절개분만을 결정하게 된 이유로는 의사의 권유 81.9%, 남편의 권유 0.8%, 의사와 충분히 상담후 결정 4.7%, 산모가 원하여 12.6%였고, 제왕절개분만을 원했던 임부들의 제왕절개분만 이유로는 의사의 권유 76.2%, 남편의 권유 1.3%, 의사와 충분히 상담후 결정 2.5%, 산모가 원하여 20.0%로 나타났다. 제왕절개분만을 한 산모들 중 수술전 제왕절개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경우는 55.1%였다. 제왕절개분만 이유에 대한 의무기록과 산모대담간 일치율은 75.9%였으며, 반복 제왕절개분만의 경우와 산모가 원하여 제왕절개분만한 경우 의무기록상 이유와 산모가 알고 있는 이유 사이에 5% point이상 차이가 났다.

초산부와 자연분만을 했던 경산부에서 산전에 선호한 분만방법은 실제 분만방법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고, 제왕절개분만을 했던 경산부들은 선호도에 관계없이 100% 제왕절개분만을 하였다. 분만후 분만방법별 자신의 분만방법에 만족하는 비율은 자연분만한 산모는 분만직후 84.9%, 분만1개월 후 85.1%였으며 제왕절개분만을 한 산모는 분만직후 44.6%, 분만1개월 후 42.0%로 나타났다. 분만후 다음 분만시 선호하는 분만방법은 분만직후, 분만1개월 후 모두 이번 분만방법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자연분만을 한 산모들은 자신이 분만방법에 만족할수록 다음 분만시 자연분만을 더 선호하였지만, 제왕절개분만을 한 산모들은 이번 분만의 만족도와 관계없이 다음에도 제왕절개분만을 더 선호하였다.

4. 고찰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산전관리와 분만관리는 임부와 태아의 임상적 상태에 초점을 맞춘, 의료제공자 중심의 전문기술 지향적 관리이며, 산모들 또한 분만방법결정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왕절개분만을 한 산모들이 자연분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산모들을 분만방법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시킴으로써 제왕절개분만후의 자연분만을 증가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분만에 따른 산후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